

지역 소식통

김제시자봉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봉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을 받아 백구면 백구소공원에서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자봉봉사센터,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제시치매안심센터, 가족사랑요양병원,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등 13개의 재능나눔 기관 및 단체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스포츠댄스, 이빨, 네일아트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재능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300인분의 푸드 봉사활동으로 백구면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사)한국예총 김제시지회가 함께하는 흥겨운 문화공연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참여한 봉사자들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달려가 봉사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가족센터, '요리극 조리극' 프로그램 추진

김제시(정성주 시장)는 김제시가족센터(센터장 정덕성)가 15일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결혼이민자 초기정착지원 프로그램 '요리극(COOK)조리극(COOK) 생활요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5년이내 결혼 이민자 및 7세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식생활에 대한 자신감 향상으로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아동기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레시피로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준비됐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김제시민은 김제시가족센터(063-545-8506)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정성주 김제시장, 기재부 방문... 시 4개 주요사업 국비 반영 위한 전방위적 활동 펼쳐

정성주 김제시장이 1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기후환경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만나 시 주요 사업에서 과소·미반영된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 주요사업으로는 특수건설기계 디지털트윈 기반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총사업비 490억원), 기후변화 생태문화탐방센터 조성사업(총사업비 180억원),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2차(총사업비 310억원), 국립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총사업비 1,910억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 따라 과소·미반영된 사업의 필요성·당위성·시급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방문했다. 정 시장은 "김제시는 지방소멸위기 등 지역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2025년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2025년 정부예산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이원택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쏟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17일 마한역사문화권 학술대회 연다

가족문화교육원서 개최...마한 위상 재정립·향후 방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이 주최하고, (재)고고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하는 '완주 마한역사문화권 가치정립과 미래전략' 학술대회가 오는 17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한의 출발점이자 강력한 고대국가를 형성한 완주 마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욱 전북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 '반경관역 마한문화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시작으로, 노기환 운문화유산정책연구원장의 '마한역사문화권의 미와 전복', 김종범 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 연구원의 '마한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전략과 정책 방향', 이범기 세계문화유산연구재단 원장의 '전라남도 역사



자원과 마한유산 활용방안' 순서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 후에는 좌장인 이재운 전

주대학교 명예교수 주재로 완주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완주마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한문화유산의 정비와 활용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향후 문화유산 발전과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에서 확인된 완주 상운리 고분군(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과 완주 수계리유적, 완주 원상운 고분군 등 주요 유적들은 우리나라 마한문화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완주군은 지역 문화유산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한 주요 유적들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새만금신항 개항 대비... 선진 무역항 2차 벤치마킹

부산항·포항영일만항 등 현장 견학... 실질적 항만 운영 전략 수립 반영 예정

김제시는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을 앞두고 항만 운영의 선진사례 2차 벤치마킹을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지난 7월 말 평택·당진항과 인천항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국내 선진 무역항 견학으로, 시 관계자와 항만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항, 부산신항, 포항영일만항과 동해신항을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포항영일만항에서는 포항시청 항만과 직원들과 포항영일만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항만 부



지 및 배후단지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포항영일만항이 추진 중인 친환경 항만 설비와 콜드체인 특구구역 등 최신 항만 인프라 구축 사례를 참

고해 새만금신항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발굴해 계획이다.

부산항에서는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해 항만 안내선을 탐색해 항만 구조 및 시설을 시찰하였고, 항만 운영의 실무적 노하우와 물류 흐름을 청취했다. 또한, 항만 배후단지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물류 및 산업 프로젝트를 견학해 항만과 지역 산업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업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전북 마음사랑병원 업무협약

일시 2024.10.14.(월) 16:00~16:30 장소 완주군청 4층 전략회의실



완주군-마음사랑병원, 치유농업 활성화 맞춘

프로그램 개발 구축·학술·기술 교류 업무협약 맺어

완주군이 전북 마음사랑병원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4일 완주군청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이진학 전북 마음사랑병원장은 관내 치유농장주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병원 공간 및 치유농장을 활용해 정신질환자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구축, 지역 농업자원 활용 및 연계, 양 기관 간 관련 학술 정보 및 기술교류를 약속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역사·문화 정체성 개발 연구용역 착수

완주군의회, 자치분권 확립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지난 14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자치분권의 확립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강화를 위한 '완주 역사·문화 정체성 개발 연구용역'을 본격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완주군의 역사적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 발전과 자치분권의 토대로 삼기 위한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이주갑 의원, 서남용 의원, 이경애 의원, 심부건 의원, 집행부 윤당호 기획예산실장, 임동빈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전문가, 학계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의 목적과 추진 방향, 세부 과업 내용 등을 공유했으며, 완주군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만경강과 만경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생태적 의미의 정체성 발굴 △완주전주통합 논란의 해결방안으로서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자치분권 확대 등 대안적 답변 제시 등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완주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되어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완주군민의 차별화된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의식 의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완주군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자치분권의 밑거름으로 삼아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